

스포츠를 통한 도전, 문화를 통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사랑나눔 위캔 대표)

- 부산지방법원 판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변호사
- (현)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현) 사단법인 사랑나눔 위캔 대표



올해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열기를 이어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경원 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달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소 생소한 대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도전이 있었을 텐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이 스페셜올림픽을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참여하는 선수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대회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탄탄하게 커져서 세계대회를 유치한 것이 아니기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장애인 체육 분야가 많이 소외되어 있었기에 관련 정책의 큰 틀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열기가 식기 전에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어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활동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스페셜올림픽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사회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곳곳에서 스페셜올림픽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사회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 이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미안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입국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인연이 있어 특별손님으로

초청하였는지요.

스페셜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이번 대회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었습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화의 화신으로 국내에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운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분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페셜올림픽의 화두가 ‘지적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인권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치 여사의 초청이 의미 있겠다 싶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지적 장애인 분야에 따로 관심을 집중하진 않았으나,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적장애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참가국 중에 미

안마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편, 수치 여사가 참석한 글로벌 서밋(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의 포럼이 서밋으로 격상되었음)에서 평창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선언의 의미는 지적 장애인 권리를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 **현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단체인 <사랑나눔 위캔>의 대표로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과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스포츠를 통한 도전’이 화두라면, 사랑나눔 위캔은 ‘문화를 통한 도전’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나눔 위캔은 2004년에 만들어진 국회 연구단체인 장애아이 위캔이 그 모체입니다. 장애아이 위캔 시절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산타의 작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말에 장애학생들을 초청해서 문화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문화’에서 ‘참여하는 문화’로 바뀌야겠다고 마음먹고 장애인 아티스트를 한두 명씩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사랑나눔 위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 일이 장애인 아티스트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의 길을 열어 주었고, 또 굳이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나눔 위캔에서 발굴한 아이들이 이번 스페셜올림픽 기간에

각종 행사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대표적 친구가 박모세 군입니다. 박모세 군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에 국민대표 18인 중 1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최근 스페셜올림픽에서 그를 눈여겨본 미국인 목사님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8월에 4박 5일로 진행될 예정인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국내·외 장애아이를 초청하여 집중적인 음악 레슨과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랑나눔 위캔을 통해 음악에 재능을 가진 많은 장애아이가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 **일반인들은 나눔활동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몇 해 전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전을 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영어에 능통한 여성이었는데, 본인은 공무원이며 스페셜올림픽그리스위원회의 각종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휴가를 내어 내빈들을 위해 운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자원봉사 문화가 싹트는 시기라,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선진화된 자원봉사 문화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의 봉사활동은 도움을 주는 쪽이나 도움을 받는 쪽이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GO단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매주 정해진 요일에 봉사단체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 홈페이지 관리나 후원계좌 정리, 사진 정리를 돕는다면, 해당 기관에서도 고정적인 사무관리 인력을 확보한 것이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나눔활동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복지관이나 양로원, 고아원 등의 구체적인 장소를 찾는 데 집중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회는 지난해 사회공헌단을 창단하여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여 어떻게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겨울만 되면 연탄을 나르는 장면은 좀 진부하지요. ‘우리 회사는 장애인을 돕겠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을 돕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돕겠다’ 하는 구체적인 테마를 정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 특정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해 나가다 보면, 진정성이 생기고 전문성 또한 늘겠지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위원회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인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을 사회 각 분야에 소개하기 위해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지향적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은 'together we can'입니다. 슬로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갈등 지향적 사회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함께 가는 사회로 변모하여야 한국이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요. 재판으로는 이기고 지고가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사회에 법률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

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에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언론중재위원회'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 ● 판사, 국회의원에 이어 사회단체 대표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인으로 활동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는지요.

지금은 스페셜올림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했기에 올해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라는 보람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도 퇴임 후에 어떤 순간이 보람되었는지 여쭙보면, 재임 당시의 최고의 순간이나 업적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마음 따뜻한 일을 한 것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겐 그 결과물이 스페셜올림픽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

위원회 창립 32주년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2주년

“ 축하 인사 ”



나경원 위원장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회의 창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3년의 화두는 힐링과 소통입니다. 언론보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언론과 국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힐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철 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교양지원

중재위원으로서 사회에서 침례하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을 다뤄볼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유능하고 센스 만점인 조사관님들을 알게 된 것은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중재위원회이기를 기원합니다.